

심야 광주 도심서 고교생 2명 흉기 피습...여고생 숨져

남고생도 부상...‘묻지마 범죄’에 무계
범행 후 도주한 20대 11시간만 검거
“살 재미 없어 생 마감하려다 범행” 진술
1년7개월 전 순천 박대성 사건 닮은꼴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는 흉기 피습에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다쳤다.

범행 후 도주했던 피의자를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24)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로변 인도에서 지역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B양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온 또 다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C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에게 목 부위 등을 수 차례 공격당한 C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목 부위를 다친 B양도 소방 당국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으며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다른 시민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이 나섰고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광산구 월계동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되기 전까지 A씨는 자가용과 택시를 이용하여 광주 곳곳을 배회했고 추가 범행을 저지

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직업 없이 홀로 지나왔던 A씨는 범행 전 B양과 두 차례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염두에 두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살에 재미가 없어’ 흥

로 생을 마감하려다 범행을 결심했으며 B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밝혀낼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 9월28일에도 순천시 조례동 노상에서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30대가 휘두른 흉

기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묻지마 살인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의 피의자 박대성(33)은 범행 전 여자친구와의 결별,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던 중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까지 받자 이에 격분하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개인적 분풀이를 이유로 불특정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인 박대성은 범행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옥근·윤찬용 기자

市교육청, 대책지원반 구성·비상근무

해당 학교 학생·교직원 지원 대책 논의

각 학교에 학생 외출 자제 등 지도 요청

광주시교육청은 5일 자정께 발생한 고교생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날 비상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지원반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안치돼 있는 장례식장과 다른 피해 학생이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병원에 교육청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가족

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등 지원 대책도 논의 중이며, 전체 학교에 안전교육을 즉시 실시하고 야간 시간대 학생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지도를 요청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에이지 못한 범죄로 희생된 학생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회복 중인 학생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해당 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심리·정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마을 공금 아들 사업비에 쓴 이장 2심도 벌금형

1억5천 횡령...법원, 항소 기각

벌금 1천500만원 유지 판결

마을 공금 계좌에서 1억5천만원을 빼내 아들의 사업비로 쓴 이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

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A(70대)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도군 한 마을의 이장을 맡았던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총회나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공금 계좌에서 총 1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다만, A씨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마을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함에 따라 열린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양형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며 형량을 정했다.

A씨가 다시 한 번 불복하면서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환풍기 소음 불만’ 식당 주인 스토킹 50대 ‘실형’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환풍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주인이 ‘스토킹범’으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범

죄의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12

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2024년 10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스토킹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국 식당을 폐업했다. /안재영 기자

전 연인 폭행·협박 베트남女 등 4명 구속

특수강도 혐의...일당 중 2명 불법체류자

전 연인을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베트남인과 이에 동조한 이들이 구속됐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A(20대·여)씨와 같은 국적의 외국인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받았다.

A씨는 같은 국적의 전 연인 B(20대)씨를 지난달 30일 오후 8시4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 오게 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집에 두고 간 집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빌라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 C(20대)씨 등 4명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며 전 연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이에 B씨는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뒤 풀려났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A씨

등 4명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 중 C씨와 또 다른 공범 D(20대)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연상 기자

목포서 80대 노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목포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5분께 목포시 상동 소재 자택에서 친모인 B(8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얼굴에 자상을 입은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시 A씨는 외출을 하려던 중 B씨가 이를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